

# “방탄소년단 군 면제 혜택 줘야”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K팝 가수 등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방탄소년단’ (BTS, 사진)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이가 유튜브 조회 수 세계 신기록을 냈다. 전 세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그런데 (병역특례 리스트에) 온 국민에 꿈과 젊음을 주는데 영감을 주는 것은 다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분야는 저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해서 선정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으면 어렵다.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1973년부터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배려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MIC Drop) 리믹스 버전 뮤직비디오가 26일 오후 6시 52분 무렵 유튜브 3억뷰를 돌파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4억뷰를 넘긴 ‘DNA’를 비롯해 ‘불타오르네’, ‘쩨어’, ‘피 땀 눈물’,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까지 총 5편의 3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 그룹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 장나라, 가수로 컴백... 4년만



장나라(37, 사진)가 26일 신곡 ‘섬데이’ (Someday)로 4년 만에 가수 컴백했다.

장나라의 소속사에 따르면 ‘섬데이’는 KBS 2TV 수목극 ‘당신의 하우스헬퍼’ 네 번째 OST이다.

힘든 날이 흘러가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안한 발라드곡이다. 극 중 머릿속도 집도 엉망이 된 임다영(우주소녀 보나)이 완벽한 남자 하우스헬퍼 김지운(하석진)한테서 위안을 얻는 순간을 노래로 묘사했다.

소속사 측은 “오랜만에 노래를 선보이는 만큼, 장나라는 음원 녹음을 앞두고 몇 날 며칠을 홀로 연습하며 공을 들였다. 더욱 성숙해진 장나라의 감성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장나라는 최근 “되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생겼다. 그래서 발성 연습을 병아리처럼 조금씩 하고 있었다.”고 밝혀 가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영화와 드라마에 집중하던 장나라에게 마지막 음원 발표는 2014년 MBC 드라마 ‘미스터 백’ OST ‘하루 종일’이다.

# 홍상수 감독, “김민희 위해……”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열애 사실을 인정한 영화감독 홍상수(왼쪽)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씨가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앞으로의 이혼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감독의 한 측근은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혼은 불가피하다.”면서 “원만히 합의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 홍상수 감독은 소송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연인 김민희를 위해서라도 세간의 비난을 딛고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굳히게 됐다.” 전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기혼자인 홍 감독이 아내와 딸을 뒤로하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가중됐다. 김민희는 불륜설 후에도 홍 감독이 연출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와 ‘그 후’, ‘풀잎들’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2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는 기쁨을 토했다.

앞서 지난 18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조정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A

1222호 숫자퍼즐 정답

5	3	8	4	2	1	7	6	9
6	4	9	7	5	3	2	8	1
1	7	2	6	8	9	3	4	5
7	2	5	1	3	8	4	9	6
3	9	4	2	6	5	8	1	7
8	6	1	9	7	4	5	2	3
9	5	6	8	4	7	1	3	2
4	1	7	3	9	2	6	5	8
2	8	3	5	1	6	9	7	4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 타고난 팔자의 압력으로 인한 병고(病苦)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팔자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로인해 고초도 겪을 수 있다. 오래 전에 전화로 어느 중년 부인과 자기 아들의 사주를 상담하게 되었는데 팔자가 아들의 사주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에 강한 압력이 있는 사주가 되므로 법조계나 공직, 군인, 경찰 또는 의학이나 특수 기술성을 발휘하는 엔지니어 계통으로 진출한다면 타고난 팔자의 특징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분야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고(病苦)로 고생하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지금 저의 아들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머리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래서 팔자가 다시 건넌 이야기는 “아드님의 직업이 무엇인지요?”라고 물었더니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팔자가 건넌 이야기는 “원래 타고난 팔자 자체에 큰 압력이 있는 팔자로서 그것을 직업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통의 사무직을 했다면 팔자 자체에 있는 압력이 오랜기간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압력이 폭발하면서 병고(病苦)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귀인(貴

人)이 돕는 해가 되므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나 훗날 건강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타고난 팔자의 압력을 해소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사람마다 각기 모두 다른 특징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자기 팔자에 있는 특징이나 압력을 잘 활용한다면 남들보다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작용도 하게 되는 것이다.

-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